

16/12/18(주) 주일예배 / 제목 :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다 (마 2:9~12) p. 2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오늘은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루스 맥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란 책에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10월에 ‘에데 리켄베커’ 라는 조종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비행기는 바다에 추락했고, 그는 파편 조각에 올라 하루하루 버티었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남은 기력을 다해 하나님께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매기는 본래 육지 가까운 해안가에 서식합니다. 육지에서 수백 킬로나 떨어진 바다 한 복판에 갈매기가 날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한 마리의 갈매기가 날아온 것입니다. 그는 이 갈매기를 잡아먹고, 내장을 미끼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생존하다가 구조되었습니다. 그 갈매기는 하늘에서 날아와 자신을 먹거리로 주었습니다. 갈매기는 죽었고, 그는 살았습니다. 갈매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갈매기처럼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덕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본론 /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성탄절에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였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기뻐한 것은 단순한 별이 아닙니다.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다가 아기 위에 머물러 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

라

그들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였습니다. 이들은 동방박사들로서 하늘에 있는 별을 연구해서 인간의 운명을 점치고, 꿈을 해석해주는 점성학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동방은 중동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으로서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 오심에 대하여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머나먼 길, 고난의 길을 낙타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사막입니다. 살벌한 광야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폭양이 내리쬐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가야한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걸어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생 끝에 그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무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사막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한 가지 이유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인이 되어서도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기쁨을 찾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신론적 철학자인 '니체'는 본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신앙인의 3대 삶의 지침을 말합니다. 그것을 (살전5:16~18)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신앙인의 삶의 3대 원리입니다. 그 중 무엇이 가장 앞서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즐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로 오신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슬퍼하고 애통해 살 것인가는 나의 선택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진정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하며 성탄절을 보낼까요?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기뻐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대왕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4). 똑같이 예수님 오실 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헤롯왕~~ 유독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손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유대 땅에서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인 이두매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대의 왕이 되었고 유대의 왕으로 있는 동안 로마의 황제와 유대 총독이 몇 번씩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25세 젊은 나이로 주전 37년에 취임해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재임하였습니다.

그는 권력욕이 대단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아내와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첫째 부인과 큰 아들, 그 이후에는 두 번째 부인과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뿐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두 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 속담에 "헤롯의 왕자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더 행복하다"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헤롯은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산 사람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을 잃지 않을까 평생을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갔고 자신은 악질이 악화되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혼'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탄생할지 알고 있습니다(6). 그러나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냉철한 머리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좋은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을 놓치고 결국 그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잡이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행동없는 머리만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이신론자들입니다. 신앙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을 구분할 때 ~~신앙~~ ~~신앙~~ ~~신앙~~ 구분을 합니다. 이신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지식으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비판은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어려서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행위는 없습니다.

왕년에 자신도 이런 저런 성경공부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활은 엉망입니다. 실천력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가라지 신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기쁨이 없습니다. 성탄의 감격과 기쁨도 없습니다. ~~나~~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칼리스토~~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고, 사르트르는 '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안계십니까? ~~나~~ 말년에 미쳤다고 합니다. 그가 광기 어린, 그 미침 속에서 낙서장에 남긴 메모는 "신이여, 당신은 살아있다. 나는 죽었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사르트르~~는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었지만 1980년 3월 불란서 파리의 부르세 병원에 폐수종을 죽을 때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가를 곁에 서있는 자기 아내에게 묻지 못하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Voltaire)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글을 집필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100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미신가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욕을 퍼붓는 나를 가만 두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몸을 떨며 의사에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오, 이제 나는 지옥 불에 들어가는구나” 절규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신앙인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볼테르가 운영하던 인쇄소에서는 지금 성경을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들렸다고 말했습니다(막3:20-30).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요7:5). 친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막3:21).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십시오. 형제들이 기도합니다.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들이 주를 위해 순교를 하며 진리를 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성탄절에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드림으로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이 찾아 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탄절을 산타크로스의 날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추리에서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언론에서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지위에 비하면 나귀의 구유에 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겸손하게 경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초라한 나귀의 구유일지라도 유치하게 생각하고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흔히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셨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의 구유’였기 때문입니다. 말이나 나귀나 비슷한데 뿔 굳이 따지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과 나귀는 그 상징성에서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지므로 아무렇게나 말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예수님이 누추한 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갖는 더 중요한 상징성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말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말이란 반드시 전쟁에 사용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아무 동네에서나 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과 나귀가 주는 상이한 이미 지입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교만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신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이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나 나귀의 구유에 눕셨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은 나귀처럼 겸손하며 순종하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일제히 스가랴를 인용하여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눅 9:9)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 (마 21:5)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멩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처럼, 교만과 호전성을 나타내는 말 대신에,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신 것은 탄생하셨을 때 나귀의 구유에 누이신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과 나귀는 이와 같은 대조적인 상징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귀의 구유'를 슬그머니 '말구유'로 바꿔치기 할 뿐 아니라 바른 지적조차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지를 넘어 예수님을 향한 모욕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은 필수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그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기쁨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11). 이 보물은 당시에는 제일 귀한 것이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 예물은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으로써 예수님은 만왕의 왕 이심을 보여줍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레2:1,2)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약품으로써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 한 것입니다.(요19:39,40)

그것을 팔아 경비로 쓰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물은 우릿간에 있는 아기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찾던 그 메시아임을 깨닫고서 겸손하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귀한 예물을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이 주어지면 건강으로, 지식이 주어지면 지식으로, 명예가 주어지면 명예로, 권력이 주어지면 권력으로, 재물이 주어지면 재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동방박사들과 함께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달려온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준비된 것이 없는 채 달려왔기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는 말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들은 그 밤에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한걸음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중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요즘 방송국마다 무슨 연예대상, 방송대상 시상을 참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출연자들에게 특정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범근 감독이 어느 방송에

출연하면서 똑같은 주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내가 있게 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지금 와서 제가 조금 유명해지고 출세했다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라고, 그 분 덕분이 라는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딴 말은 다 안 해도 분명히 그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영방송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절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또 내 평생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까요? 이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 앞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 바랍니다. 성탄절에만 반짝 주님 생각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내 평생에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요약정리 /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성탄절에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2.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드림으로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